

‘문화’와 ‘산업’의 조화로 가는 길

김문환 | 서울대 미학과 교수

얼마 전에 <팔만대장경>을 제목으로 한 뮤지컬이 공연된 적이 있다. 최근 들어 뮤지컬이 상당히 발전된 면모를 보이면서 소재 면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지만, 책을 제목으로 한 공연은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려 현종 2년(1011), 거란군의 침공을 받고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이를 물리치기 어렵다고 생각한 고려의 군신들이 <팔만대장경>을 주조하기 시작해 장장 76년이 지난 선종 4년(1087)에 완성한 것이 <초조 고려대장경>이다. 그러나 몽고의 2차 침입 때 불타버리자 고종 23년(1236)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15년 후에 오늘날 해인사에 보관돼 있는 <재조 고려대장경>을 완간했다.

이 뮤지컬은 외침을 겪으면서도 ‘민음’을 잃지 않았던 고려사람들의 모습을 극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여전히 환란중에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한다. 말이 쉬워 8만이지, 총경판 81,258장에 모두 5천3백만의 자를 새긴 이 엄청난 작업은 백두산 높이에 버금간다는 물량적 의미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외침을 막아냈다는 정신적 의미에서도, 아울러 동북아 한역대장경 중 가장 우수하다는 학술적 의미에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현재 전산화 작업이 진행중이었는데, 오랜 문화국가로서의 모습을 국내외에 알리기에 알맞

은 기획이라 할 만하다.

이와 같은 기획의 일환은 아니지만, 이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제작됐다는 것은 책과 연극 모두를 좋아하는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가 여러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줄 안다. 한결같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문화의 범주에 들어오는 여러 분야, 특히 예술문화 영역과 문화산업 영역이 웬지 서로 걸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덜어낼 수 없다.

아직 국회가 심의중이어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서 내년도 문화예산이 국가예산 1%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영역이 전체의 40%정도, 문화예산 영역이 전체 20%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산업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문화산업 분야가 너무나 소홀시돼온 까닭에 편중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그러나 문화예술 영역이 지나치게 잡다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상업주의적인 색채가 짙어 보인다는 평판은 앞으로도 좀체 가시지 않을 듯싶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문화주의’를 작용해야 한다는 요청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뮤지컬 <팔만대장경>은 책이 대표하는 문화산업 분야와 공연예술을 조화시켜보려는 노력으로 읽히면서 내게는 여간 의미로워 보이지 않는다. 영국의 문화정책이 예술문화와 문화산업을 아우러서 창작산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